

軍 장병을 위한 박물관복지 서비스

Museum welfare service for soldiers

조정아¹

JeongAh Cho¹

요약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로 휴전상태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병력을 충당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을 지정해 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2년 군 복지 예산은 7,877억 원에서 13년 9,122억 원으로 1,245억 원 증진되었으며 전체 비율로 따지면 15.8%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 복지 예산은 생활시설의 현대화, 보건, 급식 질 향상, 근무복 질 향상, 군 자녀 교육 등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이며, 군 문화예술의 복지는 그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 장병을 위주로 복지 실태 조사와 군과 협력한 군 박물관 복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군과 박물관이 서로 연계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에는 경제발전을, 군에는 사기진작을, 박물관에는 박물관의 공익적 성격과 맞물려, 잠재적 박물관 관람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핵심어: 군인 복지, 박물관 복지, 지역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Abstract

South Korea has been in a state of truce since the Korean War and is paying troops not through a volunteer military system but through a conscription system. In the country, "the basic law of the military welfare" is designated and the treatment is improved for the morale and the welfare of the military. In particular, the welfare budget increased from 787.7 billion won to 912.2 billion won in 2013, reaching a total of 15.8%. However, this welfare budget is a budget that covers the whole of welfare such as modernization of living facilities, improvement of quality of food, improvement of working quality, and education of military children, and it is not easy to grasp the status of welfare of military culture and arts. In this paper, we will investigate the welfare situation of the army soldiers and the welfare plan of the military museum that collaborates with the military. The synergies that the military and the museum can get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are believed to be a great help in securing potential museum visitors by combining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and promoting fraud in the military and public interest in museums.

Keyword: Military welfare, Museum welfare, Local service, Experience program

¹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jeongah.cho@kookmin.ac.kr

Received(May 31.2016), Review (June 12.2016), Accepted(June 3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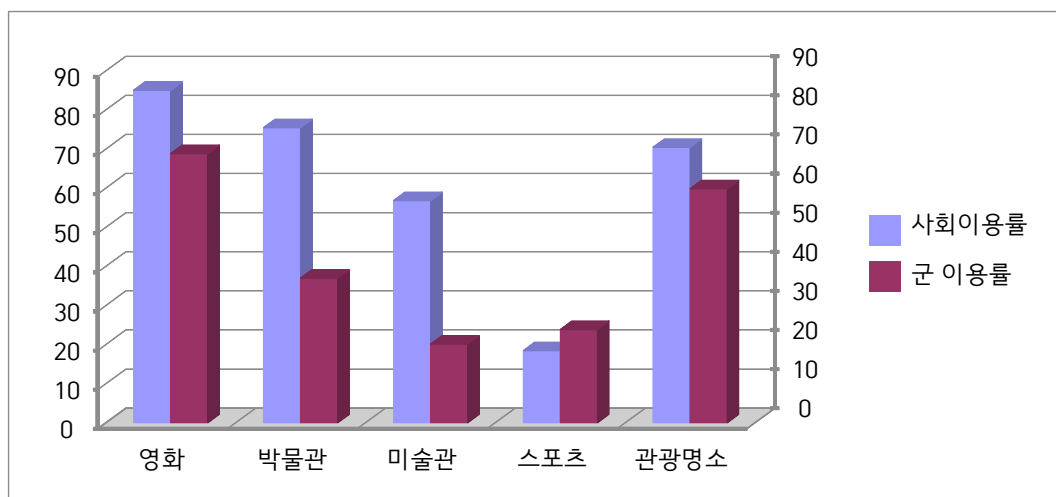
1. 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로 휴전상태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병력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병역법」(전문개정 1993. 12. 31, 법률 제4685호)에 명명되어 있으며, 2013년 현재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징병검사와 그에 따른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로 지정되어있다. 인구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장교를 제외한 병사의 수가 44만 1498명에 다다르고 있는 현황을 보자면 굉장히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다[1].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을 지정해 군의 사기와 복지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2년 군 복지 예산은 7,877억 원에서 13년 9,122억 원으로 1,245억 원 증진되었으며 전체 비율로 따지면 15.8%에 다다른다[2].

하지만 이 복지 예산은 생활시설의 현대화, 보건, 급식 질 향상, 근무복 질 향상, 군 자녀 교육 등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예산이며, 군 문화예술의 복지는 그 실태 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이들의 문화욕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주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특성상 이에 관한 시설자체가 전무해 문화예술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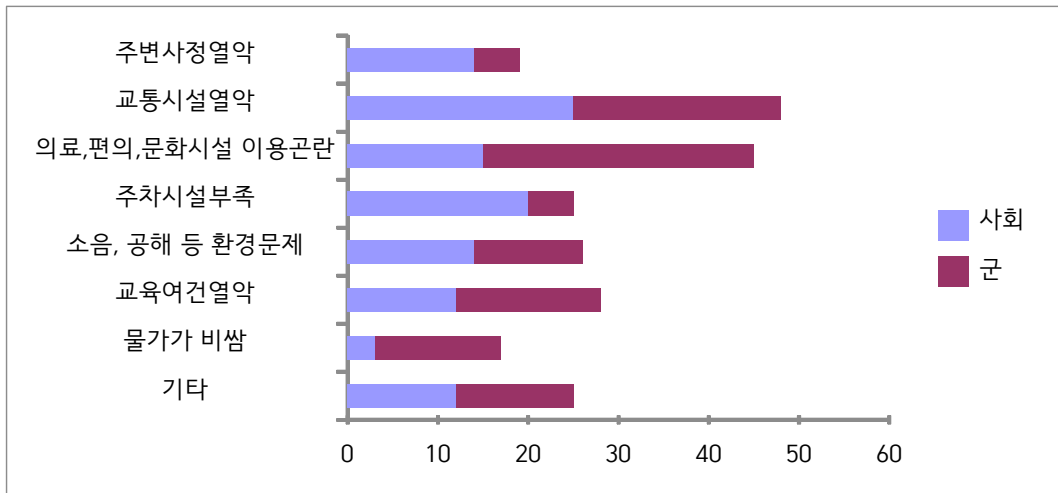
[표 1] 군과 사회의 문화/여가 시설 이용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culture/leisure facilities utilization rate of military and society



[표2] 군과 사회의 주거 여건 비교- 불만스러운 점

[Table 2] Comparison of housing conditions in the military and society - dissatisfaction



이는 자유롭게 생활 속에서 MP3, TV,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던 장병들이 엄격한 계층구조와 조직적 집단생활이 강조되는 군 집단에 편입되면서 느낄 불안감과 문화예술 활동이 제한적이며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엄격한 조직문화, 여건의 열악함으로 문화욕구 성향 미반영, 지휘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필요인식부족, 국방사업에서 문화예술이 후 순위 사업 일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병영문화의 위기상황으로 문화예술 생활의 단절을 뜻한다 말할 수 있다[4].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군 장병을 위주로 복지 실태 조사와 군과 협력한 군 박물관 복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군과 박물관이 서로 연계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에는 경제발전을, 군에는 사기진작을, 박물관에는 박물관의 공익적 성격과 맞물려, 잠재적 박물관 관람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2. 현황파악

1) 軍 복지법과 복지실태

군 복지(military social welfare)는 국가, 국방부, 군인공제회 및 기타 자조조직 등이 주체가 되어 군 조직 성원(군인가족포함)에게 경제적, 정신적,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복지

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방부의 국방종합정책(1994)에 나타나있다[5]. 현재 군 복지는 군인기본 복지법(법률 제11389호 공포일 2012.03.21 시행일 2012.09.22.)이 제정되어 있지만 문화예술 복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표 3] 군인기본 복지법에 나타나있는 복지

[Table 3] Welfare in the basic welfare law of soldiers

제9조	군 숙소 지원
제10조	주택의 우선 공급 등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표4]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Table 4] Article 3 (Methods of Survey on Welfare Acts of Military Personnel)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복지법과 별개로 군에서는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병영문화예술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병사들이 복무 중에 문화예술생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으며 신세대 장병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나날이 높아지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건전한 여가시간을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연 프로그램 위주로 짜져 있으며, 약 20~30여명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진

행하므로 신청한 사단에 1~3팀 정도, 1개 사단에 30~60여명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인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6].

2) 軍을 위한 박물관복지 실태 조사

① 국방부 실적 자료

2013년 현재 국방부 자체에 문화예술복지 또는 박물관복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는 없으며 정보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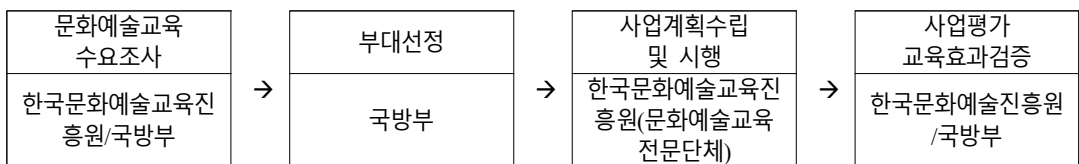
[충남 이남 지역(경상, 전라포함) 전체 군부대 확인 결과,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에서 군부대 강연 도는 출장전시 등 지원은 최근 1년간 없었고, 단지 반기 집중정신교육 기간(사전에 협조하여) 병사들이 버스로 이동하여 무료 관람은 자주 있었지만 이것과 관련 실적 등 현황자료는 확인 할 수 없음] - 경상도 ○○부대, ○○○대령, 2013년 4월 16일

②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병예술프로그램

국방부와 MOU를 맺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장병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나, 부대의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교들의 문화예술복지의 필요성 자각 부족으로 전체 군에서 소수만이 이용하고 있다[7].

[표5] 군 장병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Table 5] Army soldiers and Arts education system.



③ 서울 내 3개 박물관 현황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확인 결과 서울이라는 군부대와 연관이 적은 지역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표6>과 같이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은 없었다.

[표 6]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

[Table 6] Museum Program for Army Soldiers

이름	지역	군 장병을 위한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밀리터리뮤지움 운영 -군 부대에서 박물관 방문 시 큐레이터와 전시관람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요리프로그램을 군 장병을 위해 이용 중 -인근 부대와 협력체제 구축 후 부대에서 요청 후 박물관 방문, 박물관 에서 상황에 맞게 준비
전쟁기념관	서울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 국립광주박물관의 '밀리터리 뮤지움'

이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달리 광주박물관 또는 군부대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전시유물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군부대 밀집지역이 아니나 군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2006년 광주 전남 소재의 향토사단을 방문하여 물레를 이용한 도자체험과 한지를 이용한 체험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년 5월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확대되면서 큐레이터가 부대로 찾아가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거나 전통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Coming Military Museum"을 운영하였다.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 *대 상 : 19 세 이상
- *일 시 : 13:00~
- *장 소 :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및 교육관, 군부대
- *교육비 : 무료
- *정원 : 105 명

【교육일정】

일정	신청일시	내용	신청
2013-02-15	2013-01-15~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신청마감
2013-02-26	2013-01-16~	밀리터리 뮤지엄 - 인장 만들기	신청마감
2013-03-15	2013-02-15~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신청마감
2013-03-26	2013-02-16~	밀리터리 뮤지엄 - 인장 만들기	신청마감
2013-03-29	2013-02-19~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신청마감
2013-04-05	2013-03-05~	밀리터리 뮤지엄 - 인장 만들기	신청마감
2013-04-19	2013-03-19~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신청마감
2013-05-03	2013-04-03~	밀리터리 뮤지엄 - 인장 만들기	신청마감
2013-05-31	2013-04-21~	밀리터리 뮤지엄 - 문화재 책갈피	신청마감

[그림 1] 국립광주박물관에 올라와 있는 '밀리터리 뮤지움'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Fig 1] Introduction image of 'Military Museum' program in Gwangju National Museum

⑤ 국립청주박물관의 '장병들의 박물관 나들이'

대상을 현역 장병 이외 전의경까지 넓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유물 설명 및 전통예술에 대한 교육과 그에 관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2008년부터 시작된 청주박물관의 장병프로그램은 지역 군장병과 전의경에게 바른 역사인식을 전하고,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으로 평이 높다.

⑥ 지자체의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복지

현재 인제, 춘천, 강릉, 파주, 연천, 양구 등에서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군 장병 외출, 외박과 훈련병 면회객, 장교가족 등이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제대한 장병들이 가지는 지역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대한 특색을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지역관광지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병사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으며 전입신병 뿐만 아니라 기존 장병들의 안보교육 및 문화교육 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한 모범장병들의 부모 초청 행사 때도 팸투어를 실시한 결과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8].

⑦ 2006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문화관광부와 국방부가 2006년 맺은 MOU를 살펴보면 장병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문화예술 교육 인력양성, 장병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 병영도서관 운영교육 등 의 사항에 협력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시와 교육부분이다. 충분히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2006년 군장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의 활동 사항에 대해 찾아 볼 수 없다[7].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도 박물관 복지는 꼭 필요하다.

[표 7] 지자체에서 군 장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Table 7] A museum-linked program run by local governments for soldiers

인제	찾아가는 다도체험	다도교육	인제군 군부대 방문	설화 차인회 (회장: 최미숙) 인제시 보조
강릉	군 장병 팸투어	오죽헌 시립박물관, 단오문화관, 통일공원 등		
파주	청년! 파주를 만나다	코스1 황희선생 묘- 반구정-방촌영당 코스2 화석정-자운서원-울곡선생가족묘 코스3 경기평화센터-통일연못-자유의 다리- 경의선증 기관차화동- 철마는 달리고 싶다-평화의 종- 망 배단- 임진각 평화누리- 미국군참전비- 임진강 지구전적비-미얀마 아웅산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코스4 파주 영어마을 코스5 헤이리마을 일대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등)	중대당 모범병사 9명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 문화청 2013년 4월 1회 시작
연천	군 장병 선사체험	전곡선사박물관을 관람 후 전곡유적지에서 선사 바비큐 체험을 하는 등 관련된 또 다른 유적관 광 체험	9개 대대 1천여 명	
고성	팸투어	통일전망대,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건봉 사 등	2011년 기준 89회, 3463명	

3. 軍 박물관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1) 軍 장병 욕구조사

DMZ 작전지역으로 전혀 외부의 문화예술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는 '7사단 수색대대 2중대 39 작전 부대'의 23명 군인을 대상으로 다음의 총 11문항의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질문에 답변 인원수는 괄호 안에 표시)

복무기간 동안 문화예술 생활을 무엇으로 영위하십니까?

①독서 (3) ②TV (6) ③운동 (8) ④부대 내 PC (6) ⑤기타 창작활동 (0)

2. 복무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YES (2) ②NO (21)

- 2번의 문항에 YES라 답하셨을 경우, 군 장병 할인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①YES ②NO (2)

- 2번의 문항에 NO라 답하셨을 경우, 앞으로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YES (11) ②NO (10)

3. 군 장병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정책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아님 (1) ② 아님 (9) ③ 보통 (8) ④ 그러함 (5) ⑤ 매우 그러함(0)

4. 복무기간 동안 느끼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우 아님 (0) ② 아님 (2) ③ 보통 (10) ④ 그러함 (7) ⑤ 매우 그러함 (4)

5. 만약 군에서 지원한다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or 재능기부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아님 (0) ② 아님 (11) ③ 보통 (8) ④ 그러함 (2) ⑤ 매우 그러함 (2)

6. 정신집중 교육 기간 동안 이용하고 싶은 활동이 있습니까?

①보안교육(0) ②관광지 관람 (2) ③휴식 (12) ④교양교육 (2) ⑤문화서비스 이용 (7)

7. 복무기간이 그 이전에 비해 문화생활의 단절을 느낍니까?

① 매우 아님 (0) ② 아님 (0) ③ 보통 (2) ④ 그러함 (11) ⑤ 매우 그러함 (10)

8. 박물관의 군부대 초청이 군 장병에게 복무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아님 (7) ② 아님 (8) ③ 보통 (5) ④ 그러함 (2) ⑤ 매우 그러함 (1)

9. DMZ 부대에 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아님 (2) ② 아님 (5) ③ 보통 (6) ④ 그러함 (6) ⑤ 매우 그러함 (3)

9. 군 부대 내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대학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 (4) ②외국어 공부(4)

③건강을 위한 운동 (7) ④교양을 위한 독서 및 취미활동 (4) ⑤ 없음 (4)

10. 박물관에서 군을 위한 강좌를 마련해 대학의 교양강좌처럼 지속적 강의와 수료 인증서 발급이 될 경우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매우 아님 (4) ② 아님 (6) ③ 보통 (8) ④ 그러함 (4) ⑤ 매우 그러함 (1)

위의 결과에서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던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문화생활의 단절을 느끼고 있지만, 내무반 안에서 문화 예술적 교양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박물관의 군 장병 복지 서비스 마련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는 일반 공영장

이나 대형 미술전시와 달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학술적인 이미지와 접해보지 못한 이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근무 시간 이후의 자유시간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노동에 자기 개발보다는 휴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2) 軍 박물관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국가의 국방력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지만 입대 전에는 한 가정의 아들로써 또래의 친구이자 형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살던 이들이다. 이들이 군에 입대함으로써 인해, 자신의 욕구 대부분이 조직을 위해 채워지지 못 한 채로 생활하게 된다. 여기서 신세대 장병들은 심리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느끼는 병사들은 군 생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된다[9]. 군대 내에 존재하는 5%의 부적응 자는 전시 상황은 물론 일상생활 중에도 특수 사회인 군대 내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10]. 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선진 병영문화 비전(2005.10)'과 정훈기획관의 '병영 문화예술 활동 검토보고(2005.9)'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4]. 복무 중인 장병들이 대부분이 청년기의 자아가 강한 시기인 20대이며, 자아를 존중받던 신세대인 것을 기억하고 군대의 문화가 바뀌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문화예술 분야는 장병의 감성적인 면을 만져주며, 부대 내 강직된 분위기 완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 분야이다. 특히 박물관은 오지에 있는 군부대 특성상 극단과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군 장병의 문화예술 복지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을 알리고, 박물관을 아무런 편견 없이 접하게 하여,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장병들에게는 단순한 이벤트성 문화예술 체험보다 자신의 교양과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써 박물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 軍을 위한 박물관복지 방안 제시

1) 軍 박물관복지시간 구축

현재 몇몇 부대에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경우,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한다. 즉 병사들의 휴식시간

중 희망자를 뽑아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물관 외에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져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마는 이러한 상황은 장교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휘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과 군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 욕구는 항상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당연했던 과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에 대해 군 장병이 근무 시간의 일환으로 박물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의무적인 종교시간의 제 3의 방안으로 박물관 교육서비스 이용이라는 것을 마련하거나, 정신교육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학예인력들이 인근 군부대에 찾아가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서비스 개발

지속적인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마무리 될 때 장병들이 체험프로그램에서 만든 인형, 그림 등을 전시하는 행사를 군 장병 가족 초청행사와 맞물려 진행한다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면회객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의 운영자금과 군의 복지기금과 지역 발전기금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의 '지자체의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복지' 부분을 살펴보면, 1개의 박물관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지역 박물관 및 관련 유적지 탐방 등으로 프로그램이 꾸며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특색을 홍보하고 군과 박물관 지역이 협조해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여겨진다.

위 프로그램은 단순 전시 관람에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작성되었다. 군부대는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에 박물관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박물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없애고,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며, 박물관측에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맞추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3) 프로그램 예시

양구의 군을 위한 박물관 복지서비스 개발
[목표] ■ 양구군의 박물관을 이용한 군 장병의 복지서비스 개발, ■ 장병들의 양구군에 대한 지역 이해 및 홍보 효과 ■ 군, 지역, 박물관이 아우러진 지역행사로 인한 지역경제 이바지
[사업내용] ■ 양구에 대한 지역이해도 높이기
[사업 참여자] ■ 인근 군부대 ■ 양구군 ■ 박수근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레지던시, 양구 백자박물관, 양구 선사박물관, 양구 천문대 양구 명품관 등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 양구의 백자 프로그램 예시 (3개월 기준) ① 참여 군 장병 성향 파악 및 전시물품 해설 - 1주차 ② 백자에 대한 기초교양교육 -2~3주차 ③ 백자도자기 만들기(흙 다루기~물레~가마) -4~8 주차 ④ 자기 작품 만들기 - ~12주차 -작품 전시 및 수료증 발급 -차후 백자체험 재능기부 병사 ■ 양구의 미술 프로그램 예시 (3개월 기준) ① 박수근 미술관 전시물품 및 미술관 건축에 대한 해설 - 1주차 ② 현대 미술작품 해설, 레지던시 방문 및 집주 작가와의 대화 - 2주차 ④ 레지던시 입주 작가 연계 미술 교육 및 작품만들기 - ~10주 ⑤ 작품 전시기획 및 전시 - ~12주 -작품 전시 및 수료증 발급 -차후 박수근 미술관 재능기부 병사 ■ 양구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예시 (1개월 기준) ① 선사박물관 전시물품 해설 및 선사생활체험(바베큐: 돌도끼와 불피우기) - 1주 ② 광치자연휴양림, 양구 생태식물원(야생화 및 전시 식용가능 식물 교육) -2주 ③ 두타연 방문, 전쟁유적지 방문, 2주차 교육 실습 - 3주 ④ 양구 명품관 지원 하에 곰취와 백민들레로 요리하기 -4주
[축제 프로그램]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 ■ 군부대 면회객에게 오픈 행사 ■ 계절별로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하나로 모아 진행.
[기대성과] ■ 군 장병의 군 생활 성취도 향상 ■ 군 장병의 문화예술 생활 단절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군 장병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으로 인한 문화인구 향상 ■ 군 장병의 근무지역의 이해도 향상 ■ 지역의 홍보효과 및 경제 시너지효과

5. 결론

군 장병은 그 자체가 특수 집단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던 젊은이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시 전 군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관해 신세대 장병에 대한 연구와 문화예술 복지 방안 마련에 모두가 열심히 이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성에 문화예술은 항상 후 순위일 수밖에 없다. 지휘관들 또한 전투력을 위한 교육과 장병의 심리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임관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가 장병의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할뿐더러 중요도에 대한 인식 또한 떨어진다. 이에 관해 2006년부터 국방부는 문화예술진흥교육원과 MOU를 맺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군 장병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마저도 박물관 또는 그 관련 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전국의 12개의 국립박물관에서는 2006년 광주박물관을 시작으로 밀리터리뮤지움이 실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편차가 크다. 또한 사립박물관에서는 지역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몇몇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군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무하다.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11]. 이에 맞게 문화예술 분야의 소외 계층인 군 장병을 위한 박물관 복지가 활성화 되어, 많은 장병들이 박물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

- [1] 15,000 soldiers in three years ↓, The Seoul Shinmun (2012)
- [2] 2013 National defense budge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3)
- [3] The army welfare of present and future, Army Headquarters (1998)
- [4] A Study on the Arts education programs for military officers and men,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06)
- [5] J.R. Choi, A Study on the Introducing Professionals for the Welfare Promotion of Military Corps,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07)
- [6] H.J. Oh, The studies of Necessities and Activity Methods of Military Cultural Arts. -Focused on Performing Arts and Educ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2)
- [7] Arts education policy white paper,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2006)
- [8] Gangneung-si, Military target free familiarization tour popular, Newsis (2009)
- [9] Y.A. Kim, The effect of military soldiers' emotions on psychological exhaustion,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2006)
- [10] Army 5% Non-compliant is the time bomb of the quarter, Hankyoreh Shinmun (2005)
- [11] Act on Promotion of Museum & Art Galler 10367, (2010)